

14:00-14:30

학회지의 발전 방향

성균관대의대 기생충학

조 승 열

1. 서 론

의학 학회지 발전의 구체적 목표를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면 발전 정책에 도움이 될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Uniform Requirement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2. <http://www.nlm.nih.gov/pubs/factsheet/jsel.html>
3. <http://scientific.thomson.com/free/essays/selectionofmaterial/journalselection>
4. KoreaMed 의학 학술지 평가 항목

이상의 문서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의편집) homepage www.kamje.or.kr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들 문서의 내용을 학회지의 발전 정책이라는 방향에 맞추어 간추리겠다.

2.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 등재 학술지 선택 기준

NLM에는 Literature Selection Technical Review Committee가 있어 PubMed에 등재할 학술지를 선정한다. 그 선택 기준으로는 1. 학술지의 취급범위, 2. 학술지 수준 (인용되는 정도 등), 3. 편집수준 (전문가 심사 여부, 연구윤리 관련, 이해관계 등 조항 포함), 4. 제작수준 (레이아웃, 인쇄 수준, 도표작성 수준, 종이 등 포함), 5. 독자 범위, 6. 내용의 구성 (원저 연구 논문 등이 주 내용이어야) 등을 주관적으로 검토한다. 이 위원회가 등재 학술지 선택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다.

3. Thomson Scientific의 SCI 등재 학술지 선택 기준

등재 학술지 선택 기준은 기본적으로 미국 NIH의 NLM의 것과 같다. 차이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과학정보 회사의 상품으로 제작하는 것이라는 것과 논문제목, 저자, 소속, 초록, 참고문헌 등이 반드시 영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과학정보 회사가 제작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상업성 때문에 등재 조건이 더 엄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4. 의편집 (KAMJE)이 평가하는 항목

1996년 창립한 의편집이 제일 먼저 실시한 사업은 학술지 평가이다. 평가 항목은 자체 평가 항목 (학술지 편집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 14개, 실물 평가 항목 (평가단이 학술지의 편집 상태를 평가하는 것) 13개 항목, 협의회 평가 항목 (배포 상태와 인용 정도 조사) 6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를 통과한 학술지는 KoreaMed에 등재한다.

5. 발행인이 정하는 발전 정책

학술지 발행인이 정하는 정책은 투자 규모, 창간, 폐간, 합병 등에 관한 정책과 편집인 선정이다. 창간하기로 결정한 학술지가 취급하는 논문의 범위 등을 고려하는 일은 상업적 출판회사 발행인의 경우 매우 중요하지만 학회 학술지의 경우 학회 회장이나 이사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특히 세부전문학회 (subspecialty society)의 경우 취급하는 논문의 범위는 미리 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편집에 관련한 투자와 정

책으로는 편집인이 학술지 편집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인원 (copy editor, 편집위원회 위원 등)의 고용 수준, 공간 제공 여부, 인쇄 수준과 관련된 제작비 규모, 인쇄 회사 선택 방법, 광고 정책, 국제화에 필요한 web 제작, XML 제작 등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된다.

발행인이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편집인을 정하는 것이다. 편집인에 의하여 학술지의 수준과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 (특히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잘 훈련된 편집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젊은 사람 중에서 편집업무에 흥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평소에 미리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학회 회장이나 이사장이 바뀌면 편집인을 바꾸는 관행은 (의편협 평가의 제1 항목) 학술지 발간에서 가장 회피하여야 할 사항이다. 유능한 편집인을 잘 선택하고 오래 일하도록 하는 것은 학회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어야 한다.

6. 편집인의 정책

편집인이 하는 일은 제작하는 학술지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편집의 목표는 독자가 흥미 있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학술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편집인은 투고규정 정비, 원고 중 게재할 논문을 선택하는 일 (편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선택한 원고를 논문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통제하여야 하는 체제 (format), 제작한 학술지 내용을 많은 사람이 접속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6-1 투고 규정

투고 규정은 학회지가 취급하는 원고의 범위, 원고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원고를 접수한 이후 어떤 과정으로 심사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지에 관한 사항과 판단 기준, 연구 윤리 관련 조항 (IRB 승인, 대상자 동의서, 이해관계 등),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동의서 등 서류 등을 투고 예정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투고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능하면 자세하게 정하고 정한 것에 따라 매년 엄정하게 집행한다.

6-2. 원고 심사와 선택

이 과정은 학술지 편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학술지란 투고한 원고를 전문가심사 (peer review)로 심사하는 정기간행물이다. 반복하여 말하면 정기간행물 중 학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문가심사이다. 전문가심사란 편집인이나 편집위원회 위원이 심사하는 것

이 아니고 학술지 외부 전문가로서 투고한 원고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할 것으로 편집인이 판단한 분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다. 외부 전문가의 범위가 전 세계라면 가장 바람직하다. 학술지 수준은 결국 전문가 심사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편집인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 외부 심사자가 심사를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6-3. 학술지 체제의 관리

게재를 결정한 원고를 미리 정한 학술지의 체제 (format)에 맞추어 논문으로 제작하는 과정이다. 잘 편집한 학회지는 독자가 읽으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오자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해할만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며, 도표와 사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명백하게 배열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특히 초록과 참고문헌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오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편집보조인 (copy editor, manuscript editor)이 하는 중요한 일이다.

학술지 체제를 잘 유지 관리하는 일이야말로 독자에 대하여 학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체제를 잘 유지 관리하면 아름다운 책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독자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6-4. Web 관리와 국제적 데이터베이스 Link-out

과거에는 제작한 학술지를 배포하면 끝났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그 내용을 학회 web에 게시하여 여러 사람이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분야는 기술적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PubMed에서는 등재 학술지의 논문 서지사항과 초록에 추가하여 icon을 설치하여 논문 원문으로 연결하여 읽을 수 있게 하는 link-out system을 2001년 시작하였다. 그리고 free access를 권장하여 상당한 수의 학술지가 이에 협력하고 있다. 의편협의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도 Link-out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NLM은 2006년부터 PMC (PubMed Central)을 개설하고 원문을 xml 파일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시작하였다. 의편협에서는 이보다 발전한 형태인 KoreaMed Synapse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원문 접속은 물론 논문 참고 문헌으로부터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를 통하여 다른 학술지 논문으로 연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서비스를 독자에게 하려면 학회는 발간한 논문의 xml 파일도 제작하여야 한다.

7. 학회와 학회지의 규모

PubMed를 편집하는 NLM이나 SCI를 편집하는 Thomson Scientific에서 등재학술지를 선택하는 기준 중 중요한 것은 물론 전문가심사를 하는지 여부, 책으로서의 편집 상태, 인용 정도, 취급하는 의학 분야 등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시 하는 것은 발행일자 준수 여부이다. 발행일자를 지킨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학회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스스로 정한 간기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년간 등)를 지켜 독자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투고하는 원고가 충분하여 편집을 끝내고 출판할 논문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학술지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한 학술지라는 것이다. 원고가 모자라는 학술지는 흔히 간

기를 지키지 못한다.

투고하는 원고가 계속 모자라면 학술지 편집은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투고하는 저자를 존중하여야 하고 심하면 저자의 원고를 투고 규정에 맞추어 편집하기도 어려워진다. 의편집의 학술지 평가에서 편집 상태를 살펴보면 논문 심사를 한 학술지인지, 편집을 제대로 한 학술지인지 곧 판단할 수 있다. 즉 학회 규모가 작거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면 학술지는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다.

학회지를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학술지로 발전하려면 발행하는 학회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무리하게 간기를 정한다든지, 회원 저자에게 투고를 독려하여야 간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훌륭한 학술지는 만들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기 전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